

발행인 : 소장 이 상 훈

발행처 : (사) 금융경제연구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층
tel: 02)6952-8688
fax: 02)6952-8700

Issue & Report

Financial Economy Institute
(FEI)NO. 2021-05
(통권 88호)홈페이지
<http://www.fei.or.kr>

금융경제동향

현 은 주*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금융 연관성 분석

<요 약>

- ☐ 지역별 금융 규모, 지역별 인구 구조 및 지역내총생산 간 관계분석을 통해 지역 간 금융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파악하고 금융연관비율을 비교해보고자 함
-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예금은행 점포 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6개 지역은 200개도 넘지 못해 지역 간 점포 수 격차가 컸으며, 은행 특성별로는 시중은행의 감소속도가 빠르고 지방은행의 경우 오히려 수적으로 증가한 곳도 있었음
- ☐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의 경우 강원지역이 2020년 기준 점포당 약 1만명에 가까운 수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고 평균 임금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고 금융 소외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함
- ☐ 가계, 기업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수도권 쏠림현상뿐만 아니라 실물 규모(지역내총생산) 대비 금융 규모(총 여·수신액)를 의미하는 금융연관비율에서도 서울지역이 높게 나타났음
- ☐ 지역 내 금융 수요 결정요인들을 통해 정확한 지역별 금융 수요 규모를 파악하고 새로운 금융기관 유치 및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지자체, 정부, 금융기관 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지역 간 금융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지역 경제성장과 지역 금융발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들의 자금 중개 기능 역할이 보강되어야 하고 지역 내 금융자금이 지역 내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재투자'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

* 경제학 박사, tel: 02) 6952-8688, e-mail: ejhyun@fei.or.kr

I. 들어가며

2021년 2월 금융감독원은 시장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목적하에 은행권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를 발표하였으며¹⁾ 이에 따라 은행 경영공시 항목에 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현황이 추가되었다. 이는 은행권 내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점포 축소로 금융소비자의 불편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내 가게 및 기업, 공공 단체 등 금융 수요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공급을 담당하는 제 1금융기관인 지역별 예금은행은 지역별로 영업점 규모와 이의 축소 속도가 다른 상황이다. 또 동일한 감축 규모라 하더라도 지역별 인적구조에 따른 대면 금융서비스 수요충족도를 비롯해 지역 금융 규모, 지역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은행 점포 수와 인구 구조 특성, 지역별 생산성을 조사하고 이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지역별 은행 점포 수와 인구 구조

지역별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수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공하는 자료에서 지역 구분의 단위가 도 단위 내 북도와 남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전국 14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지역별 예금은행 점포 수 변화

단위: 개

	2018				2019				2020			
	전체	시중	지방	특수	전체	시중	지방	특수	전체	시중	지방	특수
서울	2,095	1,592	45	458	2,054	1,565	46	443	1,949	1,468	43	438
부산	568	222	226	120	564	219	225	120	525	195	209	121
대구	366	123	164	79	360	122	160	78	342	112	154	76
인천	307	203	10	94	305	200	10	95	289	187	9	93
광주	189	65	73	51	188	62	75	51	181	56	76	49
대전	176	124	7	45	174	122	8	44	161	109	8	44
울산	142	57	43	42	142	57	43	42	133	53	38	42
경기	1,301	840	19	442	1,304	835	20	449	1,262	794	20	448
강원	141	65	0	76	140	65	0	75	138	65	0	73
충청	329	176	0	153	330	175	0	155	322	169	0	153
전라	369	110	108	151	374	110	113	151	367	104	116	147
경상	652	209	203	240	644	207	198	239	612	192	184	236
제주	85	24	33	28	85	24	33	28	81	22	31	28
세종	43	21	2	20	45	21	2	22	43	20	1	22
합계	6,763	3,831	933	1,999	6,709	3,784	933	1,992	6,405	3,546	889	1,97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1) 금융감독원,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년 2월 9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금은행 점포 수 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을 살펴보면 약 55%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수도권 집중되어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점포 수가 1000곳 이상 넘지 못했고 특히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 세종지역은 200곳도 넘지 못해 지역 간 지점 수 간에도 큰 격차가 있었다. 3년간 전체 은행 점포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기준 약 5.3%가 감소하였으며 점포 수의 변화가 없는 곳은 세종, 다음으로 적게 축소된 지역은 전라도로 -0.54%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전으로 -8.5%가 줄었다.

한편 3년간 소비금융과 맞닿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축소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 시중은행이 평균 7.4% 감소할 때, 지방은행은 평균 4.7%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은행 점포 축소 속도가 더뎠다. 시중은행에서 2018년 대비 2020년 증가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 대전, 경기, 전라 지역과 같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이는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방의 경우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민의 대면거래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²⁾

<표 2> 지역별 인구수, 점포당 인구수

단위: 명

	2018		2019		2020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
서울	9,765,623	4,661.4	9,729,107	4,736.7	9,668,465	4,960.7
부산	3,441,453	6,058.9	3,413,841	6,052.9	3,391,946	6,460.8
대구	2,461,769	6,726.1	2,438,031	6,772.3	2,418,346	7,071.2
인천	2,954,642	9,624.2	2,957,026	9,695.2	2,942,828	10,182.8
광주	1,459,336	7,721.4	1,456,468	7,747.2	1,450,062	8,011.4
대전	1,489,936	8,465.5	1,474,870	8,476.3	1,463,882	9,092.4
울산	1,155,623	8,138.2	1,148,019	8,084.6	1,136,017	8,541.5
경기	13,077,153	10,051.6	13,239,666	10,153.1	13,427,014	10,639.5
강원	1,543,052	10,943.6	1,541,502	11,010.7	1,542,840	11,180.0
충청	3,725,534	11,323.8	3,723,716	11,284.0	3,721,866	11,558.6
전라	3,719,802	10,080.8	3,687,662	9,860.1	3,655,653	9,960.9
경상	6,050,819	9,280.4	6,028,389	9,360.9	5,979,638	9,770.7
제주	667,191	7,849.3	670,989	7,894.0	674,635	8,328.8
세종	314,126	7,305.3	340,575	7,568.3	355,831	8,275.1
평균	3,701,861	8,445.0	3,703,562	8,478.3	3,702,073	8,859.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조선비즈, “지방은행 영업점 1000개 육박… “고령층 고객 많아 축소 부담””, 2020년 7월 기사 참조

점포 수 기준의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점포당 인구수를 비교하여 금융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인 이윤석(2015)에서도 점포 수 변화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총인구수로 밝힌 바 있다. <표 2>의 지역별 점포당 인구수를 보면 서울지역은 점포당 가장 적은 인구인 5천명 미만으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 다음으로 많은 점포가 유치되어있음에도 인구수 대비하여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청, 인천지역의 경우 2020년 기준 점포당 약 1만명에 가까운 수를 감당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 전국 기준 점포당 인구수에서도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은행권 근로자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지역별 연령분포

단위: %, 세

	2018					2019					2020				
	~10	20~30	40~50	60~	평균	~10	20~30	40~50	60~	평균	~10	20~30	40~50	60~	평균
서울	15.8	30.7	32.1	21.3	42.2	15.2	30.5	31.9	22.4	42.7	14.5	30.4	31.6	23.5	43.2
부산	15.9	26.1	32.6	25.4	43.9	15.4	25.5	32.2	26.8	44.5	14.9	25.1	31.8	28.2	45.1
대구	18.1	26.4	33.9	21.6	42.2	17.5	25.8	33.7	23.0	42.9	16.7	25.5	33.5	24.4	43.5
인천	18.4	28.5	34.1	18.9	41.1	17.8	28.0	34.0	20.2	41.6	17.1	27.4	33.8	21.6	42.3
광주	20.8	27.8	32.7	18.7	40.2	20.0	27.5	32.8	19.7	40.8	19.1	27.3	32.7	20.9	41.4
대전	19.4	28.4	33.1	19.1	40.7	18.6	28.0	33.0	20.4	41.3	17.8	27.8	32.7	21.7	41.9
울산	19.9	27.7	35.0	17.4	40.2	19.3	26.9	35.0	18.8	40.9	18.6	26.1	35.0	20.4	41.6
경기	19.8	28.3	33.9	17.9	40.3	19.2	27.9	33.9	19.0	40.8	18.4	27.7	33.8	20.1	41.4
강원	17.0	23.2	32.8	27.0	44.7	16.4	22.8	32.4	28.4	45.3	15.8	22.4	31.9	29.9	45.9
충청	18.7	25.3	31.9	24.0	43.0	18.1	24.8	31.9	25.2	43.6	17.4	24.3	31.8	26.5	44.2
전라	17.8	22.5	31.6	28.0	45.0	17.2	22.0	31.5	29.3	45.6	16.5	21.5	31.2	30.7	46.2
경상	18.1	24.0	33.0	24.8	43.7	17.5	23.4	32.9	26.1	44.4	16.9	22.6	32.8	27.7	45.1
제주	20.6	25.4	33.2	20.8	41.3	20.0	24.9	33.4	21.7	41.9	19.4	24.5	33.3	22.8	42.4
세종	25.8	29.4	30.8	14.0	36.7	25.6	28.7	31.4	14.3	36.9	25.3	27.8	32.0	14.9	37.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지역별 점포 수는 또 지역별 연령분포나 지역 내 평균 임금과도 연결된다. 지역 내 사업체 수 및 상권, 소비 규모 등이 지역별 점포 수와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저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대면 채널 이용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면 금융서비스

공급이 중요해 지역별 연령분포에 따라 점포 축소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2019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현금 인출횟수와 회당 인출금액이 월등히 타 연령층보다 많았다.

<표 3>의 지역별 연령분포에서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이 큰 3곳 강원, 부산, 전라지역에 대해 <표 1>의 지역별 점포 수를 비교해보면 3년간 강원과 전라지역은 예금은행의 점포 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부산지역의 경우 2018년 대비 2020년 7.6%나 감소해 전국 내에서도 감소속도가 빠른 편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다. 한편 강원지역의 경우 점포 축소 속도와는 별개로 고령층의 비율이 전국 2순위일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점포당 인구수도 두 번째로 높아 대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서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향후 점포폐쇄와 관련한 내용으로 신설 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4> 지역별 3개월 평균 임금 및 1분위수

단위:만원

	2018		2019		2020	
	평균	1분위수	평균	1분위수	평균	1분위수
서울	285.1	170	295.1	180	304.4	187
부산	246.7	150	252.9	160	253.3	160
대구	246.2	150	256.8	170	265.0	175
인천	241.9	160	252.4	180	253.3	180
광주	250.4	150	260.0	170	262.1	170
대전	266.0	160	271.1	180	281.9	180
울산	306.5	180	301.8	190	288.1	190
경기	270.3	170	277.2	180	283.5	180
강원	207.7	120	210.6	120	213.3	120
충청	238.5	150	246.2	160	255.0	180
전라	221.7	135	223.7	140	232.3	150
경상	230.0	150	233.5	150	238.6	150
제주	227.6	150	227.8	150	238.7	150
세종	296.9	175.5	324.9	196	317.8	197
평균	248.2		253.2		259.2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3개월 월평균 임금에 대해 평균뿐만 아니라 1분위수 모두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지로 금융 취약계층에 해당하는데 강원지역의 경우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계층들의 금융 소외현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지역별 금융연관비율 비교

지역별 예금은행의 여·수신 규모와 지역내총생산 그리고 지역 금융 연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지역 금융 중 지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다루었다면 본 절에서는 실물지표와 금융지표 간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표 5>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총 여·수신액, 금융연관비율

단위 : 백만원, 십억원, 괄호(%)

	2018			2019		
	GRDP	총 여·수신액	금융연관비율	GRDP	총 여·수신액	금융연관비율
서울	423,742(22.3)	1,336,152.1(44.6)	3.15	433,488(22.5)	1,432,794.7(44.6)	3.31
부산	89,980(4.7)	194,600.3(6.5)	2.16	92,445(4.8)	210,270.1(6.5)	2.27
대구	56,714(3.0)	122,899.4(4.1)	2.17	57,756(3.0)	132,175.6(4.1)	2.29
인천	88,735(4.7)	129,998.7(4.3)	1.47	89,571(4.7)	138,915.2(4.3)	1.55
광주	39,805(2.1)	57,579.9(1.9)	1.45	41,146(2.1)	62,150.1(1.9)	1.51
대전	41,308(2.2)	64,160.9(2.1)	1.55	42,794(2.2)	69,223.5(2.2)	1.62
울산	73,648(3.9)	43,507.1(1.5)	0.59	74,930(3.9)	45,141.4(1.4)	0.60
경기	479,822(25.2)	557,341.4(18.6)	1.16	478,325(24.9)	599,507.7(18.7)	1.25
강원	46,926(2.5)	42,880.9(1.4)	0.91	48,625(2.5)	46,492.7(1.4)	0.96
충북	69,637(3.7)	44,441.6(1.5)	0.64	69,338(3.6)	47,982.5(1.5)	0.69
충남	115,534(6.1)	60,837.6(2.0)	0.53	114,642(6.0)	62,916.4(2.0)	0.55
전북	50,595(2.7)	56,674.5(1.9)	1.12	51,826(2.7)	66,983.8(2.1)	1.29
전남	75,425(4.0)	44,395.9(1.5)	0.59	76,808(4.0)	47,479.4(1.5)	0.62
경북	108,783(5.7)	73,274.1(2.4)	0.67	107,312(5.6)	77,896.1(2.4)	0.73
경남	110,720(5.8)	120,367.8(4.0)	1.09	112,849(5.9)	125,624.1(3.9)	1.11
제주	20,051(1.1)	25,939.5(0.9)	1.29	20,261(1.1)	28,128.5(0.9)	1.39
세종	11,102(0.6)	20,216.3(0.7)	1.82	11,863(0.6)	20,450.7(0.6)	1.72
평균	111,913	176,192.2	1.30	113,175	189,066.6	1.40

주: 2015년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 소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5>의 실물지표인 GRDP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쏠려있었으며 다음으로 충남, 경남 순위였다. 금융지표인 총 여·수신액 규모에 있어 더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큰 데다가 수도권이 전국 내 총 여·수신액의 약 68%를 차지하여 실물지표보다도 가계,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쏠림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박추환·정영근(2010)³⁾의 주장과 같이 점포 수 및 종사자 수의 증가는 지역 금융의 중개 기능을 발달시키므로 앞서 지역별 점포 수에서도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하였으므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지역 금융연관비율(총 여·수신액/GRDP)⁴⁾은 실물과 금융부문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발전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지역 금융연관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내총생산 즉 실물 규모 대비 금융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지역이 2018년, 2019년 모두 3을 넘어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도 GRDP 대비 총 여·수신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인 충남과 비교해 약 6배 이상 높다. 지역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융발전도가 낮은 지역은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이었다.

IV. 나가며

최근 디지털금융 확대와 비대면 채널 강화와 함께 은행 점포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은행의 수익성, 효율성 등의 경영지표를 기준으로 경영전략 상 결정된 내용이나 앞서 금융당국이 조치를 발표할 정도로 속도가 지나친 것이 사실이다. 지역별 은행 점포의 통폐합은 일차원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대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지역 금융이 축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지역 간 금융 인프라 자체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인프라를 가진 지역에서 은행 점포 통폐합 속도가 높아진다면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분석에 따르면 특히 지역별 고연령층이 많은, 평균 임금이 낮은 강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대면 금융서비스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인구수는 상위권에 해당하여 공급 부족이 심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고연령층 비중이 상위권인 부산 지역의 경우 점포 축소가 3년 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이 쏠려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실물 규모 대비 금융 규모 비율 역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박추환·정영근(2010) “대구 경북 지역의 금융기관 구조가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제 18권 3호, p.23-56

4) 최용호(2002),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대구경북개발연구, 제7호

첫 번째는 지역 간 금융공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서 다룬 추진사항들은 ‘폐쇄’와 관련한 내용으로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 인구 특성, 기반 산업 등 금융 수요 결정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금융 수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 인프라 확대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자체, 정부, 금융기관 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간 금융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 대비 금융 총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한바, 지역 경제성장과 지역 금융발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들의 자금 중개 기능 역할 보강이 필요하다. 박추환·정영근(2010)에 따르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지역 내 생산성 향상은 금융 중개 기능 강화로 이어지고 다시 금융 중개 기능을 통해 자금은 지역 내 생산활동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내 금융 자금이 지역 내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